

#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3 미칠 그날 밖은 한니리당 부총재가 탈 당 예상정 총재를 만난다는 날 말입니다.  
R 민족일보 종교수 시장의 시장경찰이 자신의 양념에 따른 일입니다.  
E 성장을 향유하고 민족을 떠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 번 끔찍이 떠나 보자구요...



45

6 진정한 '의' 속은 비로 부시경부리여 시의 방한 하루 전 미상학회의회를 참가한 우리학교 학생들은 2월 20일 부터 시기 대회 학제적이고 다양한 그 시각, 중요성을 올리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이날 미국의 대북정책도 분석해보았습니다.

7



8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 "3월 11일 창간" http://www.ihufsa.com

제799호

2002년 3월 4일(월)



## 등(登)록금이라서 계속 오르나?

등록금 책정위원회(이하 등책위)는 지난해 등록금 부정의 결과로 용인배움터 충북생협회와 학교측이 합의한 32개 학기안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등책위의 건설을 계속 이루어 왔고 그 해를 넘겨 지난 1월에서야 구설과 운명사식, 방법을 합리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등책위는 등록금 조정위원회와는 달리 등록금의 조정 아니라 책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 단계로 격상된 기구입니다.

방학동안 6차례 간접 등책위에서 학교측과 학생측은 고지서 발송에 대한 학교측과 운명사식, 방법을 합리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교측은 학사일정상 어쩔 수 없으니 이유를 들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기획정으로 한다"는 악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처음 학교측이 제시한 12.1% 인상안이 아니라 등책위에서 학교측이 낮춰 제시한 6.8% 인상안에 의해 확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 배움터 충북생협회는 서울 배움터 교문 앞에서 "일방적 새내기 고지서 발송을 규탄하는 정문봉쇄 투쟁과 충청실 향의문동 등을 진행했으며 충북교진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6.8% 인상안은 2003년 예산안에 등록금 의율이 78.4%에 달해 2000년 청주 시립대학 등록금 의율은 평균인 69%를 크게 웃드는 반면 교내외 회원들이 10%로 타 대학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예산안 정부에 예산전입금 항목이 빠져 있어 예산안이 예산안이 되어지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출범 2개월에 접어든 등책위는 대학조정 대학조정 대학조정 등록금 체장위원회의 입장'을 통해 등록금 의율은 하향조정 대학조정 등록금 확충 대학조정 등록금 확선 등에 대해 해석침의 의견을 법안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문서로 3월 6일(화)까지 등책위측에 보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민경 기자

## 양배움터 새터진행

자유로운 분위기 속 2박 3일간 펼쳐져

### 일방적 '교양'에 거부감 느끼기도...

**9** "세상이 그대를 속이다면 슬퍼하고 노여워하라"라는 기치 아래 서울배움터 새내기세포배움터(새내기)가 지난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속초 현대 휴리티파크에서 진행됐다.

새내기와 재학생들은 학교 모토 2,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새터에서는 각자와 동반자들, 본 과별 행사와 충북생협회가 주최한 종합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풍물체험 저녁연 춤연 등 춤연행사에서는 여러 동반자들과 함께 '새내기 반대', '부시반대', '성북역 반대', 등과 같은 교양이 진행되었으며 영상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충북생협회 새터营地장 송동희(상경·정치외교 98)군은 "정반으로 민족스런 새터였던 다른 학교에서는 참가한 원인이 3명이라 조금 아쉬웠다"며 이번 새터를 평가했다. 하지만 새터를 다녀온 한 새내기는 "아직은 않은 새내기들은 기부감을 나누어야겠다"고 전했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2002학년 학위수여식이 지난 27일(수)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진행됐다. 위는 학위증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이다.

## 2·28 교육투쟁 열려

'신자유주의의 교육 구조조정 저지, 교육의 공공성 행위를 위한 교육학생연대 2·28 청년학생투쟁대회'가 지난 2월 28일(목) 종묘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방송대 진행원과 각 대학의 교육투쟁 과정은 교육학생연대 위원회 김재현씨, 한국 아주대 부회장 이은선씨 등 생 viên이 연임하고 한국대학총동문회회장 김종인씨, 연희대학교 사장 김근수,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강하진씨, 서울시립 변호사회 회장 박재승씨 등 5명이 새로 임명됐다.

경주에 이어 한나라당과 함께 개최되는 2·28 청년학생투쟁대회는 KTP통일대표 김필규씨, 연세대학교 교수 이성호씨, 전현련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위원 김재현씨, 한국 아주대 부회장 이은선씨 등 생 viên이 연임하고 한국대학총동문회회장 김종인씨, 연희대학교 사장 김근수,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강하진씨, 서울시립 변호사회 회장 박재승씨 등 5명이 새로 임명됐다.

한편, 앞으로 2년간 우리학교를 이끌어 갈 임시이사진으로는 KTP통일대표 김필규씨, 연세대학교 교수 이성호씨, 전현련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위원 김재현씨, 한국 아주대 부회장 이은선씨 등 생 viên이 연임하고 한국대학총동문회회장 김종인씨, 연희대학교 사장 김근수,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강하진씨, 서울시립 변호사회 회장 박재승씨 등 5명이 새로 임명됐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요구와 주장은 대중적으로 알려 내고자 행동에서 '내시민' 신장장을 진행했고, 대표단은 교육부에 교육개혁을 시정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학교를 선호하는 황의방 교수를 전개한 후 정리집회를 기렸다.

행사는 미친 참가자

# 금강산으로 모꼬지 가실래요?

**0**

3월동안의 '잊지 못함' 금강산 관광 후일담을 기자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도착한 다음 날 금강산 산행과 한 소간에 대해 물으니 외외로 특별히 신기한 증경이 없었고 오히려 대표자 모양은 "우리 농족이랑 모든 것 이 같은데 복족 광경이란" 라며 놀라워했다고. 강군은 또 북쪽에서 금강산 관광지인 고성에 '최전방' 인 생활리더 '북에 있는 금강산에서 남의 설악산을 바라보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니'며 감회에 젖었다. 특히 산행할 때 만나는 복족원들이 부시방한에 대해 물어보면서, 그 우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전했다. 그는 특히 한총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면서 "내 목에 걸린 신분증을 보고 어느 안내원은 일수 경과 후배나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웃음을 짓았다.

강군은 23일 신행을 마치고 열린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이 금강산으로 모교지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현안사진 직원, 다른 대학 대표자들과 토론했다. "금강산에서 금강산 관광이 사설상의 '호화호피' 인 지금의 금강산에선 복족원들이 어렵다"며 20~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 등 모교지 추천에 필요한 조건들을 요청하자 직원들은 적극 수용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그는 이와 관련 "일단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금강산으로 유숙과 빌려 놓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였다.

"월정의 첫걸음은 자주 오기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그는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울지역에서 학생대표단으로 내디뎠다"며 설명했다. 그는 "나는 날이 마침 새터 이후였기 때문에 경선이 없어 여객선이 군수계선을 넘는 경관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아쉽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쉬운 표정도 잠시, 그는 곧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소개하는 모습



3월동안의 '잊지 못함' 금강산 관광 후일담을 기자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도착한 다음 날 금강산 산행과 한 소간에 대해 물으니 외외로 특별히 신기한 증경이 없었고 오히려 대표자 모양은 "우리 농족이랑 모든 것 이 같은데 복족 광경이란" 라며 놀라워했다고. 강군은 또 북쪽에서 금강산 관광지인 고성에 '최전방' 인 생활리더 '북에 있는 금강산에서 남의 설악산을 바라보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니"며 감회에 젖었다. 특히 산행할 때 만나는 복족원들이 부시방한에 대해 물어보면서, 그 우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전했다. 그는 특히 한총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면서 "내 목에 걸린 신분증을 보고 어느 안내원은 일수 경과 후배나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웃음을 짓았다.

강군은 23일 신행을 마치고 열린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이 금강산으로 모교지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현안사진 직원, 다른 대학 대표자들과 토론했다. "금강산에서 금강산 관광이 사설상의 '호화호피' 인 지금의 금강산에선 복족원들이 어렵다"며 20~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 등 모교지 추천에 필요한 조건들을 요청하자 직원들은 적극 수용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그는 이와 관련 "일단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금강산으로 유숙과 빌려 놓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였다.

"월정의 첫걸음은 자주 오기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그는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울지역에서 학생대표단으로 내디뎠다"며 설명했다. 그는 "나는 날이 마침 새터 이후였기 때문에 경선이 없어 여객선이 군수계선을 넘는 경관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아쉽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임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 새내기까지 이어주는 동아리 테마학교

02학년 새내기들에게 동아리를 소개해주는 테마학교가 지난 2월 15일(금) 서울배움터 인문과학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100여명의 새내기가 참여했으며 21개의 동아리가 공연과 풍미리소개를 했다. 동아리 특성상 공연을 할 수 없는 동아리에서는 테이블을 마련해 새내기와의 만남을 기렸다.

이와 관련 동아리 연합회 회장 고승선(사범·한국어교육 99)은 "새내기 배움터에서 서로 물어보기 무언가에 오를 수 있고 물어보거나 유치원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알고 새내기들이 적극적으로 대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영어청중동아리 ALA회장 김동현(상경·영어 01)군은 "새내기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동아리를 복지 일이 접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말 연구회 회장 이민경(상경·경제 01)군은 "처음에는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심이 있는 새내기들을 먼저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행사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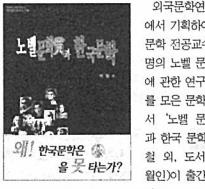
한편 이 행사에 참여한 삼성 02학년 한 새내기는 "카페에서 이 행사에 알게 되었는데 좋은 동아리를 미리알고 들어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기념국 연구회가 동아리 소개를 하는 모습

### '노벨문학상...' 책발간



외국문학연구소에서 기획하여 어문학과 진공교수 16명과 노벨 문학상에 관한 연구성과와 풍미리소개를 위한 노벨 문학상과 한국 문학(학술 저널, 도서출판 등)이 출판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발간된 이 책은

노벨문학상의 유래와 수상자 선정과정, 역사 수상자 명단, 다양한 기준으로 본 수상작 분석과 서사 전집과 이외의 저작 이프리즈, 중남미, 동유럽, 일본에서 수상자를 배운 과정과 토대 등을 살펴본다.

한국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한국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

지역화하는 정기적인 안목과 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발간된 이 책은

노벨문학상의 유래와 수상자 선정과정, 역사 수

상자 명단, 다양한 기준으로 본 수상작 분석과

서사 전집과 이외의 저작 이프리즈, 중남미,

동유럽, 일본에서 수상자를 배운 과정과 토대

등을 살펴본다.

한국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한국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

지역화하는 정기적인 안목과 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발간된 이 책은

노벨문학상의 유래와 수상자 선정과정, 역사 수

상자 명단, 다양한 기준으로 본 수상작 분석과

서사 전집과 이외의 저작 이프리즈, 중남미,

동유럽, 일본에서 수상자를 배운 과정과 토대

등을 살펴본다.

한국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한국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

지역화하는 정기적인 안목과 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 한약공간 20주년 미전

용인배움터 순수미술들이 이 '한약공간'이 창립 20주년 기념미전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6일(수)부터 22일(화)까지 서울 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대강당은 서울배움터에서 편성된 민방위

또는 간소복사를 활용해야 한다. 보증현금은

오는 3월 10일(수) 오전 6시 30분 신답동학교

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정희(여 01)은 "한국

현대화(여 01)·설경(여 00)·그리움(김지현, 97학번)·명예(이재현, 96학번)·작품(박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수상(주태식, 99학번)·오후(양정조, 81학번)

등 선배 작품과 판본집(김길운)·독일어

·영어(이재원, 98학번)·독일어(강사) 등 전시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정희(여 01)는

한국현대화(여 01)·설경(여 00)·작품(박

병순, 98학번)·이상(이명숙, 91학번)·자

## 정부 “철도=장사” 취급 허점투성이 민영화 논리 '사적독점'으로 공공성 붕괴

지난 25일(월) 새벽 8시부터 500여시간 동안 친환경했던 철도 노동자들의 피땀이 지난 27일(수) 노사 양당이 민영화·노조간 문제 등 갈등에 대한 합의문을 이끌어낸으로 일단 종료됐다. 노사 양당은 합의문에서 핵심장점이었던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 ‘철도산업의 문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선언서를 힘들었다. 이에 앞서 파업 이후 정치권에선 민영화 법안 처리 경제 충분한 사전절차를 요구하거나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높고 있어 철도 민영화 처리가 늦춰질 경향이다. 본보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철도 민영화 논리를 요약, 다음으로 분석해보았다. (자료제공: 전국철도노동조합)

편집자

정부의 철도 민영화 논리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99년 3월 철도민영화 방침을 정부 정책을 때부터 주목했듯이 국영 철도에선 민방안 운영과 관료주의 등으로 민성자본을 먼저 끌어들이어 민간화를 풀어들이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 ‘민성자본’ 원인은 정부의 의무 불이행

우선 철도가 적자라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적자규모가 총 9,554억원을 달리는 만성적자”라며 “이대로라면 2006년까지 누적부채가 20조원으로 불어나 도망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철도 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정부가 철도에게 주기로 한 공공국제화본부(PSO) 미보상액은 총 10,307억원으로 그 동안의 적자규모 9,553억원을 넘는 액수다. 노조는 “정부가 제대로 PSO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철도는 흑자가 됐다”며 정부의 ‘민성자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 국영체제에선 민방안 운영·관료주의가 필요인가?

다음은 정부의 ‘국영체제에서 (철도사업) 운영의 방만함과 관료주의는 피할 수 있다’는 논리. 2000년 한국철도의 총 부채액은 17.4%(부채부채 1조 5천억원)였다. 정부가 부채액을 200% 내려놓고 철도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입증된다. 또한 철도적자에 의한 ‘경간장’ 적자(이내 정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적자)와 철도를 생각해 볼 때 ‘방만한 운영’을 하는 정부는 원장은 과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료주의 문제는 한 체계에서 나타난 인사 등을 지칭하고 책임전은 경영체제를 갖추어 일마저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반박이다. 정부는 철도민영화 보험 철도보험공장 이종윤(36)씨는 “정부의 논리는 본다면 정부조직부터 없어야 한다”며 “경직성 같은 관료주의의 폐해는 사업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문제다. 무조건 체계를 바꾸라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민영화시 경쟁률기능... ‘사적독점’ 폐해 심각

마지막으로 철도를 민영화하여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주장을 보자. 철도와 같은 거시산업을 맡을 수 있는 민간자본이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철도를 민영화하더라도 유효한 경쟁률기능이 불가능해 사실은 ‘사적독점’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외국자본이 철도를 독점할 경우 요금을 미医科大学 올리고 공공기관에 전히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국방부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철도는 운행 할 수 있는 선로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처음에 철도 내 경쟁을 주장하자 최근 그 학제를 깨닫고 숨그리니 항공·도로 등 철도와 다른 교통부문과의 경쟁론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결국 문제는 정부가 철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철도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달 25일에 「철도의 운영정책을 알아보면 관료가 장사를 해서는 안되고 민간이 장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듯이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사회간접자본인 철도를 단순히 정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 “미국은 우리의 동맹우방국”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사형은 양심에 따른 결정

### | 이회창 총재 인터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1위를 내놓지 않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회창 정치활동 감시단’을 비롯해 ‘국보법과 주한미군’ 데리고 아베에게 가려는 내용의 ‘이회창’ 기가 불러지고 특강을 위해 기는 대학마다 학생들의 저지로 강연이 무산되거나 일부인 대학가는 그대로 빙아워하고 있다.

‘내세운’이라는 막강 괴력을 지닌 이총재에 대학원 기자들은 이런 대학 가의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아 ‘거칠뿐’을 들이 냈다. 2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경기도 한나리대학 총재실에서 ‘경의 대학신문 기자들’이 이회창 총재를 만났다.

### 이회창 비판서 “‘평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대선 기도의 이킬레스건 9기자를 비롯, 이회창 대세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집중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이회창 본격 비판서 ‘이회창 대통령은 없다’(이하준자, 월간 ‘발행물’은 한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읽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와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읽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읽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읽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읽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읽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읽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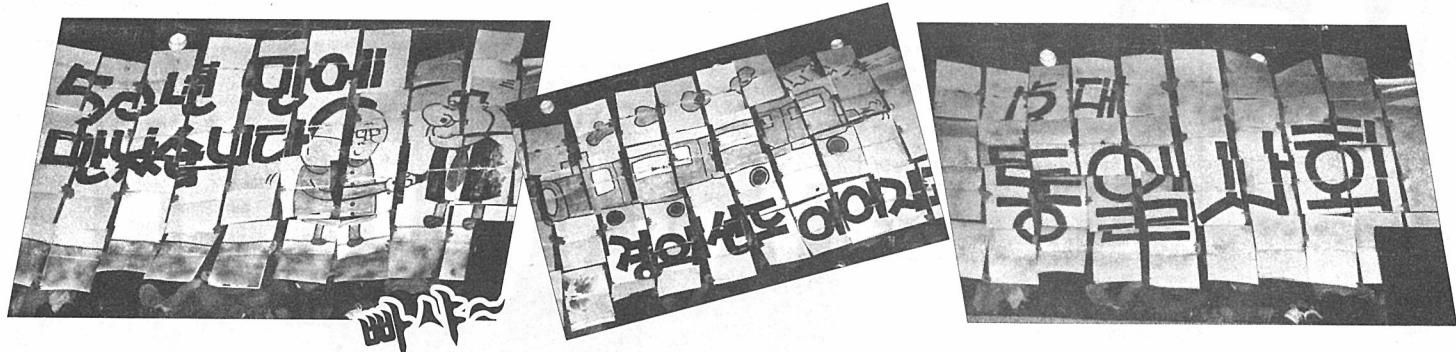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대학가가 빙아워하고 있다. 대학원 기자들은 ‘비판지’를 찾았지만 대학원 기자들은 대학신문 기자가 견내 보이자 ‘몇 장 읊어 봤는데 내용은 아주 헛된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과 일축하는 이회창 총재.

이번 비판서가 출간된 것과 함께









외대는 우리가

접수한다



# “술은 삶의 유후유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대화와 공감의 매개체

25년 전의 영국인 사무엘 존슨은 술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이 금리해 낸 것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술을 행복이라고 말한 존슨처럼 술을 잘 즐기고 있는 걸까?

요즘과 같은 일상 활동은 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취한 학생들을 종종 보게된다. 금아이 과도하게 마시는 술로 인해 새내기가 시험한 사건이 풍물 신문에 등장한다. 용인백화점의 경우, 몇몇 학생이 과도한 술로 인해 평수에서 빠져 사망한 전례가 있다.

술은 예술 알코올 성분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마실 거리를 말한다.

전 세계에서 에스키모, 앤디만, 호주의 원주민 일부, 말레이 반도의 세 망족, 아프리카의 피고족 등 술을 모르는 민족은 제외하면 술은 지구 상의 대부분의 사람을 걸친다.

그럼 술의 역할에 대해 왜대 대구 구청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술은 삶의 유후유의 깊은 것이요.” 송영택(서강·불여 01)

“술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신승철(연구자원주 입)

“술은 대화를 나누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김홍근(독일어 석사과정 1학기)

1979년에 생긴 ‘비스마르크’를 경영하고 있는 이승숙씨는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학생들은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술 먹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학교 앞 막걸리집의 닭발 위 주인 유재희씨는 “3년 전만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는 등 시기적적 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어져서 조용한 편이나리며 변화된 분위기를 설명한다.

우리 학교 철학과 박현영교수는 술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시

각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시대 술 미시는 행위는 현실세계에서 통하는 이성의 논리를 유보하고 신화적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 신과 조우하는 행위였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나라 제사의 ‘음복’이라는 행위는 밤과의 소통을 뜻한다.

박 교수는 술의 역할에 대해 “술은 현실세계를 탈피하여 관념의 세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것이고 적당히 취하게 되면 마음이 열려 지적 대화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성과의 관계에서 서로 친밀하고 사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술 문화를 묻어보자면 그가 취하기 위해 술을 미시는 것을 꼽았다. 그가 꺼내는 대화시절의 ‘주신(舊臣)’이라 불린 학생은 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술을 미시면서도 멋있는 대화를 나누고자세와 품위를 찾은 사람이라고 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려 있는 분위기로 같은 세계로 통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화가 그가 바라보는 이상이다.

**새터에서는...**

지난 2월 29일(수)부터 22일(금)까지 서울 백화점 충남회관 주최의 새내기 새롭매음축제(새내기)가 열렸다. 새내기에서 으로 벌어지는 술자리의 풍경이 어느 혜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충남회관(부국장 황인표/사회·정치외교 87)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여 이번 새내기에서는 음료수의 물을 충분히 준비하였다. 예

년과 달리 준비한 술이 비교적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음에는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한다.

송현태(서강·불여 01)군은 “제내기들의 자발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본인의 뜻대로 술을 마시게 했다”라고 말했다. 노도흔(동양·일본어 02)은 “여기서도 먹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시기 싫은 사람의 의사를 존중했다”면서 “자기가 조절만 잘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권정우 기자 tingo@hanmail.net

## 한국의 전통 술 문화

과거 우리 조상들도 휴식과 여흥을 목적으로 술을 마셨다. 하지 만 우리는 이에 어울리는 술을 넓힐 만큼 큰 명절로 여겼고 그 보람을 이침에 넣거나(宿醉)로 마시면 한 번 더 좋은 술을 드는 듯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날은 부녀자들도 술을 즐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방을**  
2월 초마다 노비일(卯酉日)이라고 한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 노비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 이날 성미이 되는 먹들에게 큰 환경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하루는 매개체로서 술을 사용하는 등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술 문화를 보여준다. 우리 세풍속과 함께 해 온 술의 문화를 살펴보자.

**정조주**  
음력 3월의 ‘청명절’에 미시는 술로 삶과 볶에 파는 꽃, 초근목과 등을 써서 만든다. 이 술은 여름을 별 탈없이 보내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 술맛이 달아 많은 사람들이 즐겼다고 전해진다.

**청포주**  
정조의 유훈을 섞어 만든 술로 음력 5월 단오절에 마신 술이다. 혼히들 악마와 마귀를 쫓는다하여 악마의 술이라 부르며 헛별이 비치는 ‘오시(五月)에 마셔야 효험이 있다’ 한다. 이날은 대낮부터 술에 취하는 날이었다.

**국회주**  
9월 9일은 양수인 971 두 번 겹친다하여 우리 선조들은 길한 날로 여겼다. 이를 기념해 경찰과 좋은 산이나 계곡에서 국화전과 국화주를 마셨다고 한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 술의 유래와 어원

### 디오니소스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술의 시조를 ‘디오니소스(비커스)’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뇌기’ 신에서 술을 뛰어 내거나 포도를 발전하고 포도주를 만들었고 전해진다. 한번 포도에서 그를 리베르(Liber)라고 하며 이 리베르의 뜻이 말과 술을 먹으려는 모든 세상의 균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대지의 여신 제페타의 자녀인 ‘디오니소스’는 술과 모든 곡식의 생산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 술의 기원

나뭇가지가 갈라진 곳이나 비위기 물풀 괜 곳에 저장해 둔 과실이 우발적으로 발효한 것을 먹어 본 결과 맛이 좋았으므로 의식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설이 제작이다. 과학적으로도 과실이나 벌꿀과 같은 당분을 함유하는 액체는 공기 중에서 흐르거나 들어가 자연적으로 발효하여 알코올을 유발하는 액체가 된다고 한다.

### 술의 어원

술의 본래말은 ‘수불(水不)’이었다.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수을(수을)’로 기록되어 있다. 즉 술란 말은 ‘수불→수을→술’로 번역은 것을 알 수 있다. ‘수불’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술을 빚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32번재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다”

##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의 대명사로 표현되는 동성애, 성기노출, 자위행위 등과 함께 성적 행위나 성적 상황은 무조건 타기 피해야 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중의 일부로 인정된 것들이다. 오해된 것들이다”며 “‘정말 음란한 것은 드러난 성기가 아닌 백과의 의미를 무시한 채 드러난 성기는 무조건 음란하다’라는 입장과 시선에 있다”라고 말한다.

영화제는 ‘비리 이야기’로 유명한 이성강 감독의 ‘제23일의 기록’, 영화 ‘김인도의 힘’의 주연인 오윤홍씨의 ‘유정’ 등 13편의 단편영화와 ‘비비비’, ‘사자상’이 두 편의 초장작과 함께 ‘음란한 것들을 상상하다’라는 제목의 토큐화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음란한 것들을 상상하다’라는 퍼포먼스와 음란발전선 만들기 기준비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영화제는 지금껏 자유의 시각자에게 놓여있던 소위 음란한 영화에 대한 인식에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민자일보, 한국 독립영화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그 터보시티였던 음란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들이 “누구 음란을 두려워하느냐”라는 부제와 함께 상영되었다.

주최측은 “음란한 개념이 자지하는 것은 특정 대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움직이는 시선처럼 상대적이다. 흔히 음란한 것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외대학보 800호 기념행사 www.ihufsan.com

지령 800호 발행 3.11일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02-3. 11월 / 도메인 www.ihufsan.com

언론학교 3. 11월 ~ 3. 15일) 오피스-54100 / 교수회관 세미나실

1154121 P동 : 경길1동MBC 3층에 위치한 3층 회의실 207호 / 외대학보 267호

1284220 인천시립대학 : 백종근대학원장 선임 NEWS 대표 / 외대학보 307호

1384320 대학기자단 : 인천대학교기자단은 시장부 차장 / 외대학보 277호

1424420 보이는 언론과 보지 않는 언론 : 전경련부회장 박미숙 오장 / 외대학보 327호

1594520 우리나라 대표언론 : 유시민서사장원장, 전 MBC 1000원

\* 언론 대상자는 사장·부장·기자·기자

인터넷 외대학보 국제학술대회 개막 기념행사

2002. 3. 4일 ~ 3. 5일

대상 : 서울·광주·모든 대

별로 및 시장 : 3. 개막 / 3. 개막 0000

외대학보 800호 기념행사 3. 10일 16:00 / 교수회관 석당

자·격  
모집부서  
원서접수  
원서마감  
문의  
대표메일

02학년 새내기 등 대학신문에 관심 있는 누구나  
대학부·사회부·문화부·회화부·사진부·인터넷부·민회부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 기자실  
3월 25일 월요일 5시까지  
홈페이지 http://ihufs.hakbo.co.kr 서울02-961-4152 / 울산031-330-4112  
oedae@hanmail.net

대학보 수습기자 모집

